

비즈니스와 삶 속에서의 '바운스 백'
BOUNCING BACK IN BUSINESS AND IN LIFE

By Jim Langley

나는 19살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고, 아무런 사전 지식과 연습 없이 대학 친구들과 처음으로 나인 홀을 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비록 첫 시도는 엉망이었지만, 그 스포츠에 매료되어 그해 여름부터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다.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이전 홀에서 부진했다가 다음 홀에서 '바운스 백(만회)'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라운드에서 파(par) 또는 심지어 언더파(under par)를 기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골프 실력이 많이 줄었으므로 요즘 나에게 바운스 백이란 보기(bogey)를 여러 번 한 뒤 파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전히 골프를 사랑하는 나로서 바운스 백은 변함없는 짜릿함을 안겨준다.

물론, 바운스 백의 중요성은 골프장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개인적으로 역경 가운데서 바운스 백 해야 했던 다양한 경험이 있었다. 가끔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가끔은 닥친 상황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억울할 때도 있다. 골프에서도 어떤 때에는 공이 갑자기 물이나 모래, 또는 다른 예기치 못한 곳에 빠지기도 한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기대한 승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도 있다. 또는 많은 시간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 제안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좌절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바운스 백을 결단할 수도 있다.

I have been playing golf since I was 19, and can still recall joining some college friends in playing my first nine holes without any prior golf instruction. Even though my first attempt was a poor one, I was hooked and took up the game seriously that summer.

One of the major challenges in golf is being able to "bounce back" from exceeding par on the previous hole. This is critical for shooting par or even under par over an entire round. These days, bounce-backs for me come more along the lines of managing a par after several bogeys in a row, since my golf skills have diminished as I have gotten older. But I still love the game, and bouncing back remains exhilarating.

Of course, the importance of bouncing back is not limited to the golf course. We have all discovered this in the workplace, as well as other areas of our lives. Over the past 30-plus years I have faced my share of personal experiences that required me to bounce back from adversity. I have always found, sometimes by way of hindsight, that these memorable occasions can prove significant for learning how to persevere.

Often we have done nothing to deserve the adverse circumstances in which we find ourselves. In golf, sometimes the golf ball just takes an unfortunate bounce into a water hazard, a sand trap or some other difficult lie. The same holds true for the workplace. We may have done everything we thought we should, and yet we fail to close a much-needed deal. A long-anticipated promotion goes to someone else. Or the proposal we devoted many hours to preparing is not received with the enthusiasm we had expected. So how do we respond? We can quit. We can wallow in self-pity. Or, we can choose to bounce back, determined not to let the setback overcome us.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고 대부분 순교자로서 목숨을 다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했다. 그들은 역경으로부터 바운스 백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 15:18-20)

이는 두 개의 성경구절이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을 다루는 법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로마서 5장 3~5 절에서 사도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롬 5:3-5)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

“어려운 시기가 오면 다시 바운스 백 할 각오를 하십시오.”

또 한 명의 사도, 야고보 또한 비슷한 권고를 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하나님께서서는 순교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과 타인을 우선시하는 헌신된 제자를 찾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을 던지더라도 바운스 백하며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역경을 헤쳐나가며 진정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직장에서든, 골프 코스에서든, 바운스 백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Jesus' disciples went through many trials and most of them died as martyrs, yet they persevered for Christ until their last breath. They knew how to bounce back from adversity. In fact, Jesus assured them this would be so. A short time before His crucifixion, He told His followers,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that it hated me first. If you belonged to the world, it would love you as its own. As it i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at is why the world hates you.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also”* (John 15:18-20).

This is one reason two Scripture passages focus on how we should handle the trials and adversities that come our way. In Romans 5:3-5, the apostle Paul wrote, *“...we also rejoice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He might well have said, *“When difficult times come, be prepared to bounce back.”*

Another apostle, James, offered a similar admonition: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James 1:2-4).

God is not necessarily looking for martyrs, but is seeking devoted followers who will place Him and others before their own needs. He wants us to bounce back from whatever our spiritual enemy throws at us and remain faithful to the very end. He wants us to have true victory as we deal with adversity in this world. Bouncing back, whether in the marketplace or the golf course, can be one of our greatest joys!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골프 코스의 '바운스 백' 개념에 공감합니까? 가령 골프를 즐기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의 스포츠 또는 일터에서 직면하는 시련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바운스 백 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떠한 경험이었습니까?

Can you relate to the idea of "bouncing back" on the golf course? Even if you do not play golf, perhaps you can understand because of another form of competition, or even in terms of some professional setbacks you have faced. What has it been like for you to bounce back from difficult circumstances?

2. 피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바운스 백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방해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What are some factors that might interfere with our ability or capacity to bounce back when trials and adversities inevitably come our way?

3.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일터와 개인의 삶 속에서 바운스 백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왜 그렇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Do you think that those who are followers of Jesus Christ in particular should expect challenging circumstances, both at work and in their personal lives, from which they will need to bounce back? Why or why not?

4. 이번 월요만나에 언급된 성경구절 중, 비록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운스 백'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언은 당신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온전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Even though he did not use the term "bounce back," one of the biblical writers cited in this "Monday Manna" said we should "consider it pure joy...whenever we face trials of many kinds." Does this seem like strange advice? How can we find "pure joy" as we encounter and deal with such difficulties?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요한복음 16:32-33; 고린도전서 4:10-13; 고린도후서 4:7-12; 로마서 8:35-39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 (요 16:32-33)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고전 4:10-13)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도다
- (고후 4:7-12)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롬 8:35-39)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북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